아파트 지하에 설치된 휴대전화 중계기 전기료

모르면 주민이 내고 떠들면 이통사 부담

형평없는 '이중잣대' 논란

아파트 지하 공간에 주민 편의를 위해 설치한 휴대전화 중계기의 전기 사용료는 누가 내야 할까?

국내 이동통신 3사가 통화 품질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 설치한 휴대 전화 중계기의 전기 사용료를 아파트마다 다르게 적용, 물의를 빚고 있다.

광주시 일곡동 대림 2차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통 3사 중계기가 설치됐다. 하지만 설치에 따른 전기 사용료를 관리사무소 측에 내고 있는 곳은 KTF(연 4만원)와 SK텔레콤(연 2만4천원) 뿐이다. LG텔레콤은 전기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전기료를 납부하기로 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LG텔레콤이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전기료를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광주시 남구 대흥 백운스카이 2차 아파트는 지난 2004년부터 SK텔레콤과 LG텔레콤으로부터 매년 2만4천~2만5천원 전기료를 받고 있다. 진월동 삼익 세라믹 1차 아파트는 전기료를 받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

KTF 광주마케팅본부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지하 공간에 설치한 소형 중계기는 900여 개 . 하지만 중계기를 설치한 모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기 사용료를 내는 것은 아니다.

KTF 광주마케팅본부는 "일부 아파트에는 중계기 한 곳 당 매년 2만~2만5천원의 전기료를 납부하지만 주민들 요구에 따라 설치한 경우 관리사무소나 주민 자치위원회 측이 해결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SKT도 사정은 비슷하다. 통화 품질이 좋지 않던 예전에는 주민 요구에 따라 중계기를 설치하면서 전기료 등에 대해서는 아파트 측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뤄진 아파트도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똑같은 중계기를 설치해놓고도 주민이 전기료를 부담하는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이통사에서 부담하는 아파트도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 '우는 아이 젖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아파트연합회' 유순남 광주·전남 지부장은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대표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광주·전남지역에서 전기료 등을 받지 못하는 아파트 현황과 사유를 파악한 뒤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골프장 사장 납치 주도

'공모' 사장 외삼촌 구속

인천공항경찰대는 지난달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경기도 H골프장 사장 강모(56)씨 일행의 납치사건을 공모하고 배후 조정한 혐의(폭력행위 등)로 강씨의 외삼촌 윤모(66)씨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김모(40)씨를 13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범행에 적극 가담한 모 기업인수회사 대표 정모(39)씨와 납치 실행을 주도한 경호업체 팀장 김모(32)씨를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호사 김씨는 지난달 20일 평소 가깝게 지내던 윤씨로부터 강씨를 납치해 골프장 운영권을 가로채자는 제안을 받고, 기업인수회사 대표 정씨와 범행을 모의했다. 이들은 주주총회 서류를 위조, 골프장을 제 3자에게 매각한 뒤 윤씨가 2천억원, 변호사 김씨가 300억원, 정씨가 1천200억원을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지난 2005년 말까지 모 지방검찰청 지청의 부장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 김씨는 체포영장을 위조해 건네주고, 도피자금 2천만원을 건네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주요 용의자인 기업인수회사 대표 정씨는 제3공화국 당시 최대 미스터리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정인숙(여·당시 26)씨의 친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

동사무소 직원 사칭 20대

노인 상대 절도 구속

광주 서부경찰은 13일 노인들을 상대로 동사무소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사칭, 절도 행각을 벌여온 고모(29)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서구 양동 이모(여·69)씨 집에 찾아가 "노인 복지회관에서 나온 자원 봉사자"라고 속이고 얘기를 나누다가 이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34만원을 훔치는 등 네 차례에 걸쳐 18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고씨의 수첩에 노인 120여명의 인적사항과 은행계좌가 적혀있고, 다른 이의 신분증 14매를 가지고 있는 점으로 미뤄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 /김여울기자 wool@

예비군 '서바이벌 훈련' 육군 제31사단이 올해 첫 소집한 예비군 교육에 응소한 동원 예비군들이 13일 시가지 전투교장에서 서바이벌 장비를 이용, 훈련을 받고 있다. 31사단은 '훈련은 재미있고 실전처럼, 휴식은 편안하게'라는 구호 아래 과거 지루한 훈련방식을 탈피, '헤드 셋 착용 사격' 등 실전감 넘치고 과학화된 훈련을 도입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노래방 강도 용의자 '그놈 목소리'가 공개됐다

'그놈 목소리'가 공개됐다. 광주 도심을 활개하고 있는 노래방 강도의 유력한 용의자가 경찰에 목소리를 남긴 것이다.

'그놈 목소리'는 1991년 발생한 '압구정 이형호군 납치 사건'을 토대로 제작돼 최근 개봉한 팩션(fact+fiction) 영화의 제목이다. 영화에서 부모에게 수차례의 협박전화를 했던 유괴범은 싸늘한 아이의 시신과 전화선을 타고 오는 목소리만을 남겼다. 범인은

광주 사투리 20대 사건 직후 112전화

윤곽조차 불투명한 채, 지난해 초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었다.

지난해 말부터 광주시 북구·동구 등에서 8건이나 잇따라 발생한 노래방 강도의 동일범으로 추정되는 '그놈'이 사건 직후 112 지령실에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동부경찰은 13일 서내 방송을 통해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목소리를 공개하고, 형사계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녹음을 시켜 자주 듣도록 했다. 지난 1월13일 새벽 5시50분께 녹음된 것으로 112 지령실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내용이다.

발신자는 태연한 목소리로 "수고하십니다"라고 운을 뗀 뒤 "오치파출소 맞은 편 A노래방 가보셨습니까"라고 물었다. 당직 경찰이 "이미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아시고…"라고 하자 그는 곧바로 수화기를 내렸다.

전화가 걸려온 시각은 사건 발생 약 40분 후. 당시 범인은 노래방에서 손님 김모(50)씨 등 3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40만원과 10만원권 수표 2장 등 60만원을 빼앗은 뒤 피해자들을 묶고 노래방을 떠났었다.

약 6~7초 가량인 통화 내용을 통해 경찰은 전화를 건 사람이 유력한 용의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발신자는 20대 중반의 앳된 목소리에 광주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었다.

경찰은 또 가장 근래 발생한 동구 학동 H노래방 범인의 몽타주 작성을 위해 최면술 기법을 사용하고, 범인이 착용했던 마스크를 토대로 DNA 분석에 나섰다. 경찰이 영화에서와는 달리, 목소리의 주인공 '그놈'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선박 면세유 매각 내사

광주 동부경찰은 13일 영산강 주변의 나주·함평·무안·영암 등 내수면 선박 소유주 50여 명이 면세유를 불법 매각한 정황을 포착, 내사에 착수했다. /정상필기자 camus@

만취 20대 편의점 강도 모방 '덜미'

쌍나팔

○…만취한 20대 남성이 편의점 강도를 모방하려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덜미.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회사원 이모(27)씨는 13일 새벽 1시30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P편의점에 들어가 자신의 승용차 열쇠로 편의점 직원 김모(여·22)씨를 위협한 뒤 "먹을 것을 달라. 살고 싶으면 나를 따라오라"며 담배 7갑을 빼앗고, 김씨를 끌고나가려 했다는 것.

○…이씨는 경찰에서 "담배도 안 피우는데 담배를 빼앗다니 이상하다. 술에 취해 있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여수 화재' 생존자 22명 출국

"자의냐 타의냐" 논란 증폭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참사에서 생존한 보호 외국인들의 조기 출국을 놓고 '자의냐 타의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공대위)에 따르면 당시 사망자 10명과 부상자 17명을 제외한 나머지 28명 중 22명이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출국했다.

공대위는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가 생사의 기로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생존자들을 외형상 중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주 외국인보호소로 재구금했다"면서 "외상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을 공포의 철창 안에 가둔 뒤 결국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출국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주보호소는 "강제출국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본인들이 출국을 원했고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자필 서명을 받고 녹취까지 해뒀다"고 반박했다. 또 "강제출국은 여수출입국관리소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고, 청주 보호소는 화재 피해 노동자들이 출국 전까지 잠시 머무르는 곳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